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소식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벌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3월입니다.

경기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소식지 「아름다운 내! 일!」은 특수학교(급)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다양한 기관 소개, 진로·진학 및 취업 관련 정보,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직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발행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진학·취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란?

경기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들의 졸업 전·후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 ■ 운영현황

내용	수원권역	부천권역	이천권역	구리남양주권역	의정부권역	군포의왕권역	고양권역
지원 지역	수원, 평택, 화성오산, 안성	부천, 시흥, 광명, 안산	광주하남, 이천, 여주, 용인	구리남양주, 가평, 양평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포천	군포의왕, 성남, 안양과천	고양, 파주, 김포
관할 기관	아름학교	부천상록학교	다원학교	경은학교	송민학교	의왕정음학교	홀트학교

#### ■ 지원내용

유관기관 연계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애인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업무 협약 체결
학생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학습중심 현장실습,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교사&학부모 지원	진로·진학 설명회, 교사·학부모 연수, 취업정보 제공 등 진로·직업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센터별 세부운영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2년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중, 장애인등록, 돌봄, 건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 장애인 등록

###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 불편 개선

#### 주요 변경 사항

#### ■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간소화

##### 2021년

신장장애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2022년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혈액투석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심사

#### ✓ 현행 동일 사항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시(읍면동)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은 현행 동일

## ☆신장장애인 재판정 불편 최소화

## 주요 변경 사항

-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2022년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 2년	-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 4년
- 신장장애인 영구장애 인정 여부 : 불인정	- 신장장애인 영구장애 인정 여부 : 3회 재판정하는 동안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소아청소년과가 실제 진료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진단서 발급 권한을 추가 인정

2021년	2022년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심사용 진단서 (6개 장애유형) :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진단서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심사용 진단서 (10개 장애유형) : 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6개 유형) + <u>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u> (신경분과에 한하여 4개 유형)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5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3,906)

	2021년	2022년
예산	950억원	1,001억원
대상자 수	65,094천명	69,000천명

- ✓ 지원 대상 : 현재 만 18세 등록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중
- ✓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수준에 따라 월 22만원 바우처 차등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만원)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가구원수	바우처금액 (A=B+C)	정부지원 바우처(B)	본인부담 본인부담금(C)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18만원	월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라형)		월 16만원	월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이하(마형)		월 14만원	월 8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 인상, 대상자 지속적으로 확대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 활성화

	2021년		2022년
예산	1조 5,070억		1조 7,405억
서비스 이용자 수	99,000명	⇒	107,000명
서비스 단가	14,020원		14,800원
가산급여	3,000명		4,000명
가산급여 단가	1,500원		2,000원

##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대상 및 연간 지원시간 확대

	2021년		2022년
예산	216억원		484억원
대상자 수	4,005천명		8,005천명
돌봄 단가	시간당 10,130원	⇒	시간당 11,280원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초과	전액지원 이용불가
연간 돌봄시간	720시간		840시간

##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시간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 지원 확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2021년		2022년
예산	913억원		1,408억원
대상자 수	9,000명		10,000명
월 이용시간	100시간	⇒	125시간
지원 단가	14,020원		14,800원
1인서비스 단가	3,000원		7,400원

## ☆장애인 전신마취 치과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 변경 사항

-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실시 : 환자 부담 최대 약 48만 원(67%) 감소

구분	2021년	⇒	2022년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4시간 급여
진료비	895,770원		590,730원
보험자 부담	179,150원		354,440원
환자부담	716,620원		236,29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급여 본인부담 40%), 비급여 수가를 급여 수가 대비 2배 가정

- ✓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  
: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장애인 1인 당 월 2회 인정(월 11,870원~23,750원)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

## 주요 변경 사항

- 취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시범사업 기간: 3년간 시행
- 선정 방법: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
- 대상자 수: 총 200명을 지원

## ✓ 탈시설이란?

- 개념: 장애인이 이용하던 시설을 좀 더 시대에 걸맞은 공간과 형태로 변화시키고, 시설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 주민들과 동등하게 통합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배경
  - 유럽·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음
  -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명시함
  - 장애인권리협약 19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사업 시작
  -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 시작
  - 2041년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라질 예정
  -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 공간을 공급,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지원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

## ■ 출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http://www.mohw.go.kr)
- 발달장애 정보플랫폼 보다센터, <https://boda.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http://www.koddi.or.kr)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